



12면

익산 '백제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5년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음 5월 30일) 제2581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文 대통령 '그린 뉴딜' 전북서 첫 신호탄

대한민국 대전환 속도전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해상풍력 실증단지 방문 세계 5대 강국 도약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그린 뉴딜 첫 현장행보로 부인의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관련기사 2, 3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두번째 현장 방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첫 행보로 지난날 18일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기업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대한민국 대전환과 그린 뉴딜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고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의 풍력시범용을 방문했다. 국내 유일 풍력 블레이드(회전날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국내서 개발된 블레이드 9기의 인증시험이 모두 이뤄진 곳이다.

문 대통령은 풍력시범용에서 관련 기업 개발자로부터 풍력 블레이드를 포함한 해상풍력 핵심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블레이드 시험을 직접 참관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블레이드 국산화에 성공한 개발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 국내 풍력산업의 기틀을 마련해 온 기업인들도 격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격포항에서 배를 타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장으로 이동했다. 60MW 규모의 국내 세 번째 해상풍력 단지로, 2028년까지 총 2460W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미래 사회를 위한 시대적 요구사항이자 국제적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부안군 위도 부근 해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도착해 협약식을 끝낸 뒤 송하진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유기상 부안군수 등 참여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사진기자단 제공)

기준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그린 뉴딜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이 부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보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경과보고, 양해각서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을 그린 뉴딜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안·고창 주민대표 2명과 한국해상풍력, 한국전력, 전북도, 부안군과 고창군 산자부는 전북 서남권 주민참여형 대규모 해상풍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9년 7월부터 1년간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사업추진 합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단지내 통행허용과 해상풍력 발전수익의 주민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사전·사후 방역 실시, 손소독, 발열검사 등이 이뤄졌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알뜰없다'

오늘부터 무인단속카메라 미설치 구간 집중단속반 운영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20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카메라 미설치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아직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33개 구간을 중심으로 13대의 이동형 단속차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풍남초 △우전초 △완산서초 △전주교대부설초 △홍신초 △

새연초 등 6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본격 부과됨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 배포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홍보 활동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 40대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노란색 신호등을 7개소 설치했다.

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단속하고 점심 유예시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아직 무인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구간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해 나갈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로 일부 학교 주변 원룸이나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예상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단속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對 중화권 농수산물 비대면 시장개척 지원"

도, 참여업체 24일까지 모집

전북도가 對 중화권 농수산물 비대면 시장개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시장개척에 고초를 겪고 있는 도내 농수산물 수출기업에게 온라인 시장 경쟁력과 비대면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대면 시장개척 활동에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하였다.

총사업비는 1억원 규모로 기업별 최대 8백만원 범위 내에서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 ▲비즈니스 인프라, ▲수출용 샘플비용 분야로 구분되며, 기업별로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강해원 농식품산업과장은 "코로나19 발병으로 위축된 농수산물 기업들의 불황 탈출을 지원하는 비대면 시장개척 사업으로 도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시장개척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농식품 기업은 7월 24일까지 전자우편(jmc@jfb.kr, 문의전화 ☎063-210-6698)으로 접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친환경 여행 캠페인' 오늘부터

전북환경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일부터 4주간 온라인과 무주 덕유대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친환경 생활 안내 및 비접촉형 휴식이 실천을 위한 '친환경 여행 캠페인'을 전개한다.

"환경을 생각해요! 지구를 지켜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출발 전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 뽑기, 우리나라 생태관광지 여행하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등을 실천 방법으로 제시했다.

전북환경청은 다음 달 6~7일 무주 덕유대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친환경 여행 캠페인' 환경 체험 행사를 도내 유관기관(국립공립공원 덕유산사무소,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